세밑 불교문화유산 국보·보물 지정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밑, 불교문화유산들이 대거 국보와 보물 등으로 지정 및 지정예고돼 눈길을 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부안 내소사 동종의 국보 승격이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해 12월 26일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과 종익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공중을 비행하는 듯 연출된 역동적인 용뉴, 종의 어깨 부분을 올림 연꽃 문양으로 입체적으로 장식하고 몸체에 천인상(天人像) 대신 삼존상을 부조로 배치한 점, 섬세한 꽃잎으로 표현된 4개의 당좌(撞座), 균형 잡힌 비례와 아름다운 곡률을 가진 몸체 등 뛰어난 장식성과 조형성을 지녔다. 이는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지정됐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조선시대 불상과 불교 건축물을 비롯해 고려시대 청동북, 경전류들이 세밑에 대거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천수원'명 청동북,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등 총 8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승일, 성조 등의 조각승들이 1665년(조선 현종 6) 완성해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삼장보살은 천상(천장보살), 지상(지지보살), 지옥(지장보살)의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봉행한 천도재의 하나인 수륙재에서 공양을 드린 시방세계 성중들 가운데 일부를 형상화한 것이다.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승격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돼
송림사 삼장보살상 등 보물로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

문화재청은 "송림사 삼장보살상은 조각 작품으로는 국내의 유일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은 1162년(고려 의종 16)에 제작된 청동북으로, 표면을 굵고 가는 선을 통해 3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을 문양으로 장식했다. 몸체 측면에 제작 시기, 무게, 사찰명, 주관 승려가 적힌 글씨가 있어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협주석가여래성도기〉는 중국 당나라 때 왕발(王勃)이 지은 〈석가여래성도기〉에 송나라 혜오 대사 도성(道誠)이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주해'를 붙인 주해서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1253년(고려 고종 40) 새긴 목판을 분사대장도감에서 다시 새겨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간행정보가 기록돼 있어, 13세기 중엽 분사대장도감의 운영과 역할 변화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한역본에 남송의 승려 혜정(慧定)이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책 끝부분의 발문과 간행기록을 통해 1373년(고려 공민왕 22) 은봉 혜녕의 주도하에 비구 정서의 발원, 공덕주 배길만(裴吉萬) 등의 시주, 심정(心正) 등의 판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뛰어나다.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1474년(조선 성종 5) 간경도감판본으로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조선 성종대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왕실 발원판인 동시에 불교학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엔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으로, 불상 뒤 벽면엔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부재 간의 비례가 잘 잡혀 예술성이 높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전 건물"이라고 평가했다.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보물로 지정예고된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보물로 지정예고된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지광국사탑'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복원

문화재청, 확정 결과 발표
塔하중, 환경 등 고려해 결정

일제강점기 이후 제자리를 떠나 방황했던 비운의 탑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가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확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 내에 위치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존처리가 끝난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두고 그간 승탑의 원래 자리이던 승탑원에 보호각을 세운 후 그 안에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안에 건립돼 있는 유적전시관 내부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승탑원이 지형상 24톤에 달하는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점과 보호각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내진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복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사리와 유골이 봉안된 승탑으로, 평면 사각의 전각구조이며, 화려한 조각과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10여 차례 옮겨지고 한국전쟁 중 폭격으로 파손되는 등 역사적 고난과 아픔을 겪어오다 2016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지광국사탑을 완전 해체하여 대전으로 이송한 후 2020년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올해 8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옥개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의 부재를 지광국사탑의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을 하여 112년 만의 귀향을 기념하는 귀향식을 개최했으며, 이송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재들은 유적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지광국사탑이 복원될 원주 법천사지 전시관 전경.

부처님 전생 이야기 영어로 말하고 듣자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
1월 14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서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가 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5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처님 경전 내용을 친숙히 접하면서 글로벌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전생 설화를 담고 있는 본생담(Jataka)을 영어로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1월 5~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본선 무대에 오르는 전국대회다. 전국 불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의 장으로, 어린이 전법은 물론 세계를 향한 한국 불교의 미래인재의 토대를 닦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2-722-2206

임은호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사용전후 체온변화 사용 전 사용 후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